

2024. 4. 22.(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22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디지털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

정보통신보안담당관	김완집	2133-2860
정보통신기획팀장	변순권	2133-2862
담당자	정기룡	2133-2894
관련 누리집	<a href="https://news.seoul.go.kr/gov/lovepc-request-info">https://news.seoul.go.kr/gov/lovepc-request-info</a>	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: 3쪽

### 서울시, 저소득·장애인 등에 사랑의PC 3,000대 보급...23년간 5만 5천대

- 사용하지 않는 PC 수집·정비 후 디지털 취약계층 보급... 최근 3년간 연평균 3천대
- 2001년부터 시작, 전국 최대 규모 사업 추진... 시민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
- 산하기관 및 자치구, 민간기부 물품 활용 등 PC 수집 다각화로 보급 수량 효율적 확보

-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확산과 디지털전환의 가속화로 디지털 활용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. 재택근무, 원격회의, 온라인 교육 등 각종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됨과 동시에 최신 IT 기술(생성형 AI 등)의 발달로 PC 활용 능력은 필수가 됐다.
- '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PC보급률은 72.4%인데 비하여, 장애인은 61.2%, 저소득층은 68.9%로 다소 낮은 편이다.

- 이에 서울시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 생활 수급자,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'24년 한 해 동안 사랑의PC 3,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.
  - 사랑의PC는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하지 않는 PC를 폐기하지 않고, 수집·정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비영리 사회복지 법인에 보급하는 사업이다.
  - '01년 처음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5.5만대를 보급하는 등 전국 최대규모의 사랑의PC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 최근 3년간은 연평균 약 3,000여대를 보급하였고, 금년에도 3,000대 이상 보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.
  
- '23년부터 보급수량 확보를 위해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와 더불어 민간기부 물품 활용 등 불용PC 수집방법을 다각화했고, 지원대상도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까지 확대하여 사업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  - 올해 3~4월에 민간기업(노벨리스 코리아, 위대한상상)을 통해 중고 노트북 188대를 기부 받는 등 민간기관의 사랑의PC 보급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.
  - 이렇게 기부받은 중고PC 및 노트북을 정비하여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한 정보취약계층 보급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.
  
- 또한, 서울시는 사용자 만족도 개선을 위해 PC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. '22년에는 SSD를 장착하고 모니터 크기를 상향(19인치→22인치)하였으며, '23년에는 RAM 용량을 2배(4GB→

8GB)로 상향하였다. 서울시 사랑의PC는 일반적인 문서작성이나 인터넷검색, 동영상 강의 수강 등에 충분한 수준의 성능을 갖고 있다.

○ 사랑의PC 보급 규격

구 분		보급규격
본체	CPU	Core i5 6세대 이상
	RAM	8GB
	저장매체	SSD 240GB, HDD 500GB
모니터		LCD 22인치
S/W		윈도우10, 한컴오피스 2020
주변기기		(신품) 키보드, 마우스, 스피커

- 사랑의PC 신청은 서울시 누리집이나 포털사이트에서 ‘서울시 사랑의PC’를 검색하여 나온 신청창구(<http://news.seoul.go.kr/gov/lovepc-request-info>)에서 할 수 있으며, 관련서류는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.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.
- 보급은 신청순으로 진행된다. 다만,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공공기관으로부터 PC를 지원받은 자는 보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- 제출서류는 ① 신청서 ② 신청일 6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(법인제외) ③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자격 증빙서류이다.
- 박진영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“사랑의PC가 필요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, 궁극적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역량 강화에 서울시가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